

조정을 위한 설득과 수사



소피스트 대 소크라테스

- 설득의 중심, 어디에 놓을 것인가? -

김 헌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교수
한국수사학회 부회장



소피스트 대 소크라테스

- 설득의 중심, 어디에 놓을 것인가? -



1. 들어가는 말

그리스 문명은 서구 문명의 뿌리다. 이 ‘그리스 문명’은 기원전 5세기에서 4세기의 ‘그리스 고전기’에 성립한다. 그런데 이 시대는 평화롭지 않았다. 전쟁의 소용돌이가 그리스 전역을 내내 휩쓸었다. 첫 번째 전쟁은 페르시아 제국의 침략에 저항하여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이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힘을 합쳐 막아낸 전쟁이다. 기원전 499년부터 시작된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충돌은 기원전 5세기 전반부를 수놓는다. 그리스는 페르시아의 두 차례 대규모 침략을 마라톤 전투(기원전 490년)와 살라미스 해전(기원전 480년), 플라타이아이 전투와 뮈칼레 전투(기원전 479년)에서 성공적으로 막아냈다. 외부의 적이 물러나자 아테네와 스파르타 사이에 펠로폰네소스 전쟁(기원전 431~404년)이 터졌고, 이렇듯 기원전 5세기는 이 두 전쟁으로 얼룩졌다.

기원전 4세기에 들어서도 전쟁은 끊이지 않았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승리한 스파르타는 그리스를 효과적으로 지배하지 못했고, 그리스의 주도권 경쟁은 새로운 양상으로 변했다. 그 와중에 페르시아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호시탐탐 그리스를 노렸다. 지식인들은 위기 탈출의 묘수를 모색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내실에 충실한 도시국가 체제를 모색하며 평화로운 공존을 지향했던 반면, 이소크라테스와 같은 사람은 그리스의 단합은 물론, 내부의 단합된 힘으로 외부의 적인 페르시아를 치자는 주장도 내놓았다. 이른바 ‘범그리스주의(panhellenism)’였다. 이것은 일종의 시대정신처럼 통했다. 그리스 본토 북쪽의 마케도니아의 왕이었던 필리포스 2세가 그리스를 무력으로 통합하였고, 그의 아들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동방 원정을 감행하였다. 알렉산드로스는 페르시아를 정복하며 인도 서부까지 진출하였다. 그가 숨을 거둔 기원전 323년까지를 역사가들은 ‘그리스 고전기’라 부른다.

소피스트들이 활동하던 때는 바로 이 시기였다. 문화가 최고조에 이른 시기, 그리고

정치적인 격변기에 소피스트가 있었던 것이다. 이 시기에 그리스의 많은 지역에서는 왕과 귀족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지만, 전혀 새로운 정치체제가 등장했다. 그것은 ‘데모크라티아(Demokratia)’였다. 정치적 권력이 왕과 같은 독재자 한 사람이나 소수의 귀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국가(polis)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시민의 무리(Demos=민중)’가 ‘국가 지배권(Kratos)’을 갖는 체제였다. 이 개념 자체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처음 등장한 것으로 보이지만(Dunn, 1994; Raaflaub, Ober, & Wallace, 2008), 아테네 이외의 여러 도시국가에도 민주정은 자생적으로 또는 파생적으로 성립했다.

가장 대표적인 아테네의 민주정은 기원전 508~507년 사이에 클레이스테네스가 주도하는 정치개혁에 의해 탄생하였다.¹⁾ 아테네는 전문지식이나 능력을 필요로 하는 몇몇 공직을 제외한 나머지를 제비뽑기를 통해 시민들에게 두루 맡겼다. 또한 정책입안이나 입법에 소수의 대표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었다.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회에 나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고 자유롭게 평등한 투표권을 행사하며 사안을 결정했다. 법률적인 분쟁이 생겼을 때에도 분쟁의 당사자들이 직접 법정에 나와 공격과 변호의 공방을 벌였다. 판결도 소수의 특권층이 아니라 일반시민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뽑힌 배심원들이 내렸다. 입법, 행정, 사법의 권한이 일반 시민의 손에 들어 있었다. 누군가 독재를 할 김새가 보이면 시민들은 도편추방제를 통해 위험인물을 일정 기간 도시에서 추방할 수 있었다.

아테네를 비롯해서 그리스 전역에 민주정이라는 혁신적인 정치체제가 성립하면서 시민들에게는 자기의 의견을 확실하게 표현하고 청중을 설득할 수 있는 연설의 능력이 요구되었다. 소피스트들은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며 교육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업적도 이 시기의 민주정과 관련이 깊다. 그들은 민주정의 폐단을 직시하며 그 위험성을 경고했으며, 그 정치적, 도덕적, 철학적 대안을 고심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이 겨냥한 것은 바로 소피스트의 철학과 교육이었다. 그들은 대중을 설득할 수 있는 비법을 모색했고, 그것을 가르쳤다. 대중들은 그들에게 열광했다. 전쟁이 끊이지 않던 급박한 혼란의 시기에 소피스트들이 가르친 설득의 비법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정말 효과적인 것이었을까? 이 글은 이런 물음 자체를 이해해

1) 이런 까닭에 그는 “아테네 민주주의의 아버지”라 불린다(Smith et al., 2013).

가며 ‘소피스트 수사학’의 실체에 접근하려고 한다. 만약 수사학이 설득의 기술로 본다면, 이 글은 ‘소피스트는 설득의 중심을 어디에 두었는가?’라는 질문을 건드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수사학이 설득 이상을 겨냥하는 학문이라면, 이 글이 다루는 폭은 좀 더 넓어질 것이다.

II. 소피스트 대 소크라테스

그리스 고전기에 활동한 소피스트들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은 프로타고라스와 고르기아스였다. 조지 커퍼드가 쓴 『소피스트 운동』에는 이 두 사람의 이름이 가장 먼저 제시되고 그 뒤로 프로디코스, 힌피아스, 안티폰, 트라쉬마코스, 칼리클레스, 크리티아스, 에우튀데모스 등의 이름이 열거된다(Kerferd, 1981). 힌포크라테스의 저작 중에 적어도 두 작품은 소피스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소개된다. ‘소피스트’는 정확히 어떤 사람들인가? 플라톤의 대화편은 그에 대한 대답을 준다.

1. 프로타고라스를 만난 소크라테스

플라톤은 『프로타고라스』에서 책의 제목과 같은 이름의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와의 만남을 기록하였다. 작품 속에서 소크라테스는 친구에게 자신이 당대 최고의 미남으로 알려진 알키비아데스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사람’을 만났다고 자랑한다. “가장 지혜로운 것이 어찌 더 아름다워 보이지 않겠나?” 그는 압테라 출신의 소피스트, 프로타고라스를 말한 것이었는데, “요즘 사람들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덧붙인다(309c-d). 실제로 ‘소피스트’란 그 이름 그대로 “지혜(sophia)의 전문가(-tēs)”이며 “지혜로운 것을 아는 사람”(tōn sophōn epistemōn)이다(312c). 소피스트가 알고 있는 지혜(소피아)는 무엇이며, 어떤 ‘소피아’에 정통한 사람이 ‘소피스트’인가? 프로타고라스는 아주 오래전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소피스트가 있었다고 밝힌다. 예컨대 호메로스, 헤시오도스, 시모

니데스와 같은 시인들도 소피스트며, 오르페우스나 무사이오스 일파와 같이 종교적인 예언에 능한 사람들도 소피스트고, 체육과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소피스트가 있었다는 것이다(316d-e).

그렇다면 프로타고라스는 어떤 소피아를 가진 소피스트인가? 프로타고라스는 자신에게서 배우면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나날이 항상 더 나은 쪽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라고 한다. 그런데 ‘무엇에 관하여’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어느 쪽으로 더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인가? 프로타고라스는 이렇게 대답했다. “잘 숙고하는 것입니다. 집안일과 관련해서 어떻게 자기 집안을 가장 잘 경영할 것인지, 또 나라일과 관련해서 어떻게 나라일들을 가장 능력 있게 행하고 논할 것인지 말이죠.” 그렇다면 프로타고라스가 교육(paideia)을 통해 약속하는 것은 “사람들을 좋은 시민으로 만드는 것”이며 한 마디로 “시민적 기술(politikē tekhnē)”이다(318e-319a). 즉, ‘도시국가(polis) 안에서 시민(politēs)으로서 제대로 살아가는 기술, 시민답게 말하고 행동하는 능력’이다. 이 능력은 종종 ‘정치학’으로 번역되는데,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가 직접 민주정 체제를 취하고 있었으므로 정치학은 특별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시민에게 요구되는 능력이었다. 프로타고라스는 이런 정치적이고 시민에게 요구되는 지혜에 정통한 사람이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바로 그런 지혜를 가르치는 사람인 셈이다. 그 기술과 지혜는 ‘정의’와 그 밖의 시민의 덕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런데 그런 기술, 그런 덕이 가르쳐질 수 있는가? 소크라테스가 의문을 품자 프로타고라스는 가르쳐질 수 있다고 대답한다. 이 쟁점은 이후 대화의 핵심이 되지만, 여기에서는 프로타고라스의 교육에서 핵심으로 삼고 있는 것이 시민의 덕이며 그 가운데 ‘정의’가 중요한 요소로 부각된다는 것만 짚고 넘어가자. 한편, 이들의 대화에서 물어야 할 것이 있다. “프로타고라스가 가르친 것은 과연 ‘수사학’인가?” 그것은 대중을 설득하기 위한 말솜씨로서의 수사학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학이며, 덕과 관련된 윤리학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만약 프로타고라스가 가르친 것이 수사학이라면, 그것은 단순한 말솜씨가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정치학과 윤리학 그리고 논리학의 가지로 자라난 복합적인 능력의 학문이요, 기술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2. 고르기아스를 만난 소크라테스

한편 소크라테스는 고르기아스와도 만난다. 플라톤이 재구성한 대화편 『고르기아스』에서 소피스트인 고르기아스는 ‘수사학’에 정통한 ‘좋은 연설가’로서 다른 사람들도 연설가로 만들 수 있는 교육자로 규정된다. ‘수사학’(rhētorikē)이란 ‘연설가’(rhētōr)의 ‘기술’(-ikē=tekhne)이다. 그렇다면 그 기술은 무엇에 관한 ‘연설’과 관련이 있는가? 무엇에 관하여 말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기술인가? 수사학은 ‘말을 주로 사용하는 기술이며’(451a), ‘말을 통해서만 활동과 효과를 이루고’(450b), ‘말로써 모든 것을 성취하며 효과를 거두는 기술’(451d)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 말의 효력이란 무엇이며, 그 효력은 무엇에 관련되는가? 이에 대한 고르기아스의 대답은 이렇다. “나는 그것(=수사학)을 말로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주장합니다. 법정에서는 재판관들을, 평의회장에서는 평의회 위원들을, 민회에서는 민회의원들을, 그리고 정치 집회에 해당하는 그 밖의 모든 집회에서 말로 설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453e) 설득을 만들어내는 일, 다른 사람들의 영혼 속에 설득을 낳는 힘, 그것이 바로 수사학이다. 그에 대해 다시 질문이 있다. 그 설득은 무엇에 관한 설득인가? 고르기아스는 대답한다. 그것은 바로 “법정에서나 그 밖의 군중들 앞에서 하는 설득이며, 정의로운 것들과 부정의한 것들에 관한 설득”이다(454b). 프로타고라스와의 대화에서도 그랬듯이 여기에서도 역시 정의가 문제가 된다. 연단에 오른 연설가는 특정한 행위가 정의롭다고 주장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공격한다는 말이다. 예컨대,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정의롭지 못한 짓을 저질렀다고 공격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변호할 것이다. 이때 연설가는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노력할 것인데, 그때 수사학은 정의에 관련해서 청중을 설득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의란 무엇인가? 법정에서 논쟁하는 쌍방은 서로 자신이 정의롭고 상대방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 논쟁에서 그들은 정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그들은 자신의 지식을 청중의 마음에 심어 줌으로써 청중을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청중은 연설가로부터 정의에 관해 뭔가를 배워 알게 되며, 그 지식에 따라 판결을 내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배움(mathēsis)’과

‘지식(ἔπιστήμη=epistēmē)’은 ‘확신(pistis)’과는 다르다. ‘확신’이란 ‘참된 정보’에 대한 믿음일 수도 있지만, ‘잘못된 정보’에 대한 믿음일 수도 있다. 반면 ‘지식’은 잘못된 정보와 연결될 경우에는 ‘잘못된 지식’이 아니라 ‘지식이 아닌 것’이며, 따라서 지식은 언제나 올바르고 참된 정보와 연결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은 확신과 다르며, 배워서 알게 되어 설득되는 것은 잘못된 정보에 노출되어 확신을 갖게 되어 설득되는 것과는 다르다. 이때 수사학은 지식을 전달해 줌으로써 확신을 심어주는 설득이 아니라, 지식이 없는 확신을 심어주는 설득과 관련된다. 연설가는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청중에게 제공할 수도 있으며, 알고도 고의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청중을 속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고르기아스를 논리적으로 추궁하며 소크라테스가 수사학에 대해 내린 결론은 이렇다. “따라서 연설가는 정의로운 것과 정의롭지 못한 것에 관해 법정이나 그 밖의 군중들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자는 전혀 아니고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지식 없는 확신을 심어주는) 자일뿐입니다.”(455a) “수사학은 사실 자체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전혀 없지만, 대신에 설득의 어떤 계책을 찾아내어 모르는 자들 앞에서 아는 자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게 합니다.”(459b-c) 소크라테스의 결론에 따르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청중을 속이고 연설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청중을 끌고 갈 수 있는 기술이 수사학이기 때문에 수사학은 속임수의 기술이 된다. 그리고 청중의 마음을 읽고 그들의 맘에 맞는 말을 하여 그들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 기술이므로, 그것은 대중영합의 포퓰리즘의 기술, 아부의 기술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다. 연설가가 정의로움과 정의롭지 못한 것, 그리고 아름다운 것과 부끄러운 것,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놓고 설득한다고 했을 때, 사실 자체에 관해 정의로움과 아름다움, 좋음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그는 무엇으로 청중을 설득하는가? 그 연설가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가 가진 것은 자신만의 생각, 자신만의 확신(pistis), 자신만의 의견(doxa)일 것이다. 그러면 자기 의견과 확신을 내놓고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도록 설득하는 일을 속임수라거나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을까? 속인다는 것은 진실을 알고 있을 때만 가능하다.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그것을 감추고 거짓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진실을 모르는 사람이 자신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을 확신에 차서 말한다면, 그는 적어도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지식이 부족하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지, 속이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하는 사람은 어떤가? 그는 과연 정의로움과 아름다움, 좋음에 관해 정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도 결국 자신만의 생각, 의견, 확신을 가진 사람일뿐인가? 두 사람 사이에 논쟁이 벌어진다면, 그 싸움은 지식과 확신의 싸움인가, 아니면 두 사람의 확신의 싸움인가?

플라톤이 정리한 바에 따르면, 소피스트의 수사학은 그 핵심에 설득을 놓고, 설득의 중심에 대중을 놓으며, 그 주제는 도시국가의 삶에서의 정의로움이 된다. 소피스트가 달성하려는 설득의 요체는 정의로움에 대한 객관적이며 보편적이고 확고부동한 ‘지식’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 다르며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는 ‘의견’이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비난할 만한 것은 아니다. 사실 정치적으로 긴박한 상황 속에서 정의로움의 객관적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겠는가? 서로 다른 이권과 이해관계가 부딪치며 관점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다수의 의견이 아니겠는가?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든가, 자신의 주장을 다수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여 여론을 조성하고 대세로 만드는 것이 긴요한 현실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 소피스트가 민첩하게 대응하였기 때문에 대중의 지지를 받고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문제는 그와 같은 소피스트의 수사학이 개인과 정치적 공동체의 삶에 얼마나 유익한가를 판단하는 것에 있다.

3. 트라쉬마코스를 만난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대표작인 『국가』에는 칼케돈 출신의 소피스트, 트라쉬마코스과 소크라테스 사이의 논쟁이 소개된다. 쟁점은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롭게 살면 손해를 보는가, 이익을 얻는가?’이다. 몇 가지 의견들이 소크라테스의 반문에 기각되고 대화가 결론에 이르지 못하면서 표류하자 트라쉬마코스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들어보십시오. 나는 정의라는 것이 강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입니

다.” 그가 청중을 설득하기 위해 내세운 논리는 이러했다. 어떤 ‘도시국가(polis)’든 그곳에는 권력을 잡은 강자들이 있다. 그들은 법을 세운다. 그런데 그 법이 시민들의 요구를 골고루 만족시키기는 어렵다. 선택이 필요한데, 강자들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입법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다. 일단 강자에 의해 법이 세워지면 그 법은 시민들의 행동을 재단하는 정의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정의는 강자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다. 트라쉬마코스는 대중들이 공감하고 있는 실상에 토대를 두고 설득의 전략을 짠 것이다.

그렇다면 정의로우면 유익한가? 이에 대한 트라쉬마코스의 입장과 대책은 이러했다. 강자가 자신들의 이익을 크게 하는 쪽으로 법을 세웠으니, 시민들이 법을 지킬수록 강자는 이익을 보게 된다. 반면 약자들은 법을 지키면 강자들에게 이익이 되고 자신들에게는 좋을 게 없으니 불만이 커지며, 법을 안 지키려고 할 것이다. 시민불복종에 대한 강자의 대책은 강압적인 처벌이다. 법을 안 지키는 사람에게 처벌을 내려 큰 손해를 입히면, 시민들은 큰 손해를 피하기 위해 작은 손해를 감수하며 법을 지킬 것이다. 약자들이 들고 일어나도 강자는 눈도 꿈쩍 안 한다. 법의 정당성에 항의하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공권력을 통해 반란을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치안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약자들은 남이 볼 때는 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살다가 틈이 나면 절대로 들리지 않게 법을 어겨서 자신의 이익을 알뜰하게 챙기려고 할 것이다. 그것이 정의에 대처하는 약자의 지혜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트라쉬마코스의 의견을 비판한다. 소크라테스의 반박은 ‘명분’에 기반한다. 각자가 자신의 ‘이름값’을 다하는 것이 정의라는 전제가 깔려 있고, 소크라테스는 거기에 설득의 중심을 둔다. 의사가 있다고 하자. 그가 그 이름에 맞게 ‘의사’라면, 그의 본분은 환자를 돌보는 것이다. 따라서 의사가 의사로서 최선을 다한다면, 이익을 보는 것은 환자이다. 만약 의사가 환자를 돌보는 데에는 관심이 없고, 돈을 버는 일에만 집착한다면, 그는 ‘의사’가 아니라 ‘돈벌이꾼’이다. 과잉 진료로 수가를 조작하고 불필요한 수술을 강요한다면, 그는 ‘의사’가 아니라 ‘의사’라는 이름을 내세운 ‘사기꾼’이며 ‘강도’다. 가난한 환자가 왔을 때, 손해를 걱정하며 치료를 고민하는 순간 ‘의사’라는 명분은 흔들린다. 배의 ‘선장’은 승객의 안전한 이동을 책임질 때에만 ‘선장’이다. ‘선장’의 이

름값을 포기하고 승객을 버리고 달아나려는 순간 그는 무엇인가? 그들이 ‘의사’나 ‘선장’의 이름값을 위해 본분에 충실하면 이익을 보는 것은 자신들이 아니라 환자와 승객이다.

통치자는 ‘나라를 다스리는 기술’을 가진 정치의 강자다. 그가 자기 이름에 충실하면 이익을 보는 것은 통치자 자신이 아니라 그의 다스림을 받는 시민들이다. 만약 그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을 제정하여 다스림이 필요한 약자들에게 손해를 입힌다면, 그는 ‘통치자’가 아니다. ‘통치자’의 탈을 쓴 ‘돈벌이꾼’이다. 만약 그가 약자를 폭력으로 강압하며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 데 급급하다면, 그는 ‘통치자’라는 허울을 쓴 ‘강도’다. 진정한 ‘통치자’는 자신의 통치술을 이용해서 통치를 받는 시민들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든다. 그가 세운 법은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시민들이 법을 지키며 정의로운 삶을 사는 것은 시민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제 몫에 충실하고 그 이름값을 다할 때, 그곳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를 것이다. 그것이 소크라테스가 그려주는 이상적인 국가, ‘아름다운 나라(kallipolis)’이다.

두 사람의 논쟁에서 누가 옳은가? 누가 진실에 대해 알고 있는가? 소크라테스는 정의에 대해 지식을 가지고 있는 반면, 트라쉬마코스는 한갓 자기 의견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그의 의견은 진실에서 벗어난 잘못된 정보이며 그릇된 확신인가? 아니면 그 반대로 소크라테스는 세상물정 모르는 이상주의자며, 그가 외치는 것은 사실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열망이 만들어낸 당위성이요, 정치적인 확신일 뿐인가? 어쩌면 이런 질문은 잘못된 것일 수 있다. 이렇게 물어야 할 것 같다. 누구의 말이 더 설득력이 있는가? 누구의 의견이 더 그럴듯한가? 누구의 말대로 정의를 추구할 때, 사회는 더 잘 돌아가는가?

트라쉬마코스의 주장에서 볼 수 있듯이, 소피스트는 냉정하고 거친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설득의 전략을 짠다. 예컨대 약육강식은 인간의 품격과 도덕을 위해 거부하고 싶으나, 거부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없어지지 않는 엄연한 현실임을 소피스트들은 인정한다. 그들은 공허한 이상이나 논리적 완결성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설득의 중심을 도덕적, 정치적 이상에 둘 것인가, 아니면 현실에 둘 것인가? 만약 여러분이 앞엿것을 선택한다면, 여러분은 소크라테스적이며 ‘철학적’이다. 반면 뒤엿것을 선택한다면, 여러분은 소피스트적이며 ‘수사학적’이다. 뒤엿것이 나쁘고, 앞엿것이 좋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다. 설득의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우리가 소크라테스에 대해 깊이 공감하면서도 트라쉬마코스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이 현실을 더 잘 반영한다는 느낌과 경험 때문이다. 이것을 순진하게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삶이니까.

III. 소피스트에 대한 재조명

지금까지 살펴본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의 만남에서 소피스트는 대체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는다. 소크라테스는 다른 작품 속에서 훨씬 더 심한 비판을 쏟아낸다. 그는 “소피스트가 자기가 팔려고 내놓은 것들을 찬미하면서 우리를 속이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경고하기도 했고, 소피스트의 기술을 “보수를 받는 기술 중에서, 현금을 버는 기술 중에서, 가짜로 교육하는 기술 중에서, 부유하고 잘 알려진 젊은이들을 사냥하는 기술을, 우리의 지금 이 설명이 결론짓듯이, 소피스트의 기술이라고 불러야 합니다.”라는 식으로 ‘장사꾼의 기술’로 정의하기도 했다(『소피스트』 223b). 그밖에도 플라톤은 “소피스트의 기술은 획득술 중에서도 교환술, 이것 중에서 사고파는 기술, 이것 중에서 도매술, 이것 중에서 영혼과 관련된 도매술, 이것 중에서 말과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다루되 탁월함을 파는 기술”이기도 하고(224c-d), 도매술이 아니라 “소매로 하건 직접 만들어 팔든지 간에 어느 방식이라도 상관없이, 이러한 것들에 관련해 배울 수 있는 것들을 판매하는 족속”의 기술이라고 몰아붙였다(224d-e).

그들이 돈을 밝힌다는 것도 비판의 대상이었지만, 돈에 값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무가치하거나 해로운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문제라는 지적은 더욱 더 심각했다. 소피스트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지식인들은 그들이 가르치려는 것은 사람들의 상식과 기존의 질서를 뒤엎는 파격적인 생각들인데, 그것은 젊은이들을 혼란에 빠뜨리며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비판했다. 소피스트들은 그 해괴한 생각을 교묘한 궤변에 담아 ‘마법의 주문’을 외거나 ‘최면’을 거는 것처럼 사람을 홀리는 논변의 묘기를 제공하였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런 말재주는 ‘궤변술(sophistikē)’

또는 좀 더 포괄적으로는 ‘수사학(rhētorikē)’이라고 불려왔다. 그런데 이 비판은 모두 플라톤의 눈으로 본 것에서 그의 입을 통해 나온 것이다. 이렇게 물을 수 있다. 과연 우리는 플라톤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

플라톤에 따르면, 프로타고라스와 고르기아스가 가르친 것은 정치적 맥락에서 속고하고 말하며 행동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며, 그것은 수사학으로 수렴된다. 그런데 이 두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 소피스트 일반이 보여주고 가르치려고 한 것은 이런 것일까? 그렇다면 그들의 교육에 대해 플라톤의 작품 속에서 제기되는 비판처럼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은 정당한가? 예컨대, 플라톤이 그려준 것과 같이, 소피스트들은 프로타고라스처럼 가르칠 수 없는 ‘덕’을 가르치겠다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돈을 두둑하게 챙겨간 일종의 ‘협잡꾼’이라고 정죄해도 되는 것일까? 고르기아스처럼 소피스트들은 진실을 가르치지 못하고 단순히 사람들을 현혹하여 설득하면서 거짓과 부정의가 판을 치는 사회를 조장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부유한 젊은이들을 속이고 그들에게 아부하며,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아테네의 도덕을 붕괴시키고, 학생들이 파렴치하게 야망과 탐욕에 몸을 담도록 부추기는, 과시적인 사기꾼들로 보여진다.”(Kerferd, 1981, pp. 15-16)고 몰아붙여도 되는 것일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모든 부정적인 이미지의 원천은 모두 플라톤의 작품이며, 따라서 그 이미지는 사실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 플라톤이 주관적으로 ‘만들어낸’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다른 측면에서 물어야 할 것도 있다. 많은 사람들은 소피스트의 활동 무대가 단연 아테네였다고 믿는다. 예컨대 릭켄(Ricken, 1988)은 “소피스트들의 등장에 중요한 전제가 된 것은 아테네 민주정치의 발전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우리가 주로 아테네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는 주목할 만한 소피스트들, 프로타고라스와 고르기아스를 비롯해서 트라쉬마코스, 힌피아스, 프로디코스 등이 모두 아테네 바깥의 외지인들이었다. 이들이 고향을 떠나 아테네로 온 이유는 무엇보다도 아테네의 민주정치가 그들의 활동에 유리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로밀리(Romilly, 1988)는 소피스트들이 살고 있던 곳이 과두제나 참주제 또는 왕정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활동은 위축되었던 반면, 아테네의 민주정은 그들의 활동을 보장해주는 최적의 장소였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말

해서 소피스트들은 다른 도시국가에서는 환영받지 못했던 반면, 아테네는 그들을 환영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소피스트들은 아테네에 무엇을 주었을까? 그들은 아테네의 민주정에서 훌륭한 시민으로 제대로 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답을 제시했다. 그런데 소피스트들은 어떻게 민주적인 정치 환경에 필요한 역량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가지고 있었을까? 앞서 소개한 몇몇 학자들의 지적처럼 그들이 왕정이나 귀족정, 참주정과 같이 ‘반’ 또는 ‘비’ 민주적인 환경에서 자라났고 활동했다면, 그들이 그런 교육적인 콘텐츠와 정치적인 능력을 체득할 수 있는 기회가 아테네 시민들보다 훨씬 적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이 살던 도시가 비민주적인 정치체제가 아니라 아테네와 비슷한 민주정이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소피스트들이 아테네를 방문한 이유가 아테네의 ‘교육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 이외에 다른 중요한 것이 있었음을 재고해야 한다. 그것은 당시 그리스 도시국가들 사이의 정치 외교적인 관계망 속에서 찾을 수 있다. 기원전 5세기 전성기를 맞이한 아테네는 내부적으로 점점 더 민주화되었으며 동맹국들의 정치체제가 민주화되는 것은 용인하거나 지지했지만, 역설적이게도 다른 동맹국들과의 관계는 민주적으로 개선하지 않았다. 철저하게 힘의 논리로 아테네는 동맹 내부의 도시 국가들을 다루었고, 모든 대외 정책의 결정에 아테네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었다. 아테네는 동맹국들에게 페르시아의 위협에 맞서 그리스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 힘을 통합해야 한다는 대의적 명분을 내걸었지만, 그 명분 뒤에서 아테네 시민들은 자신들의 실속을 차리기 위한 계산을 하였다. 당시 아테네를 이끌던 페리클레스는 아테네의 시민들의 민주적인 권리를 증진시키는 한편, 아테네의 제국적인 지배력을 강화하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갔다. 그는 델로스 섬의 아폴론 신전에 있던 동맹국의 금고를 아테네로 옮겨왔고, 아크로폴리스 정상에 아테네의 수호 여신을 모시는 파르테논 신전을 건축함으로써 아테네의 위상을 드높였다.

이에 따라 동맹국의 사절들이 자기 도시국가의 이익을 지키고 아테네와의 우호적인 외교 관계를 맺기 위해 아테네를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때 사절로 뽑히는 사람은 그 도시에 명망이 있는 엘리트들이었다. 고르기아스, 프로디코스과 같은 소피스트가 아테네를 찾아온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다. 그렇다면 소피스트들이 아테네에

온 것은 교육적인 이유보다는 정치적인 이유가 더 컸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절로 아테네에 온 것이라면, 로밀리가 말했던 것처럼, 소피스트들이 자국의 정치적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아테네의 민주정치체제의 자유를 선망하며 온 것이라고 보는 것은 오해다. 아테네가 소피스트들에게 가장 중요한 활동무대라고 단정을 내리는 것도 재고되어야 한다. 소피스트들은 자신의 고국에서 교사로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식견을 가진 지식인으로서 정치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였고, 특별한 기회가 되자 잠시 아테네에 들렀을 뿐이었던 것일 수 있다. 그렇다면 소피스트의 주된 활동 무대는 아테네가 아니라 그들의 출신 도시국가이거나 그리스 전역인 셈이다. 그들이 설령 ‘떠돌이 교사’였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활동은 자신들의 조국에서 시작되었고, 아테네가 매력적인 도시이긴 하지만 거기에만 머물지 않고 다른 도시국가들도 찾아다녔을 개연성은 매우 높다.

로빈슨(Robinson, 2007)은 프로타고라스(490~421년)의 출신지인 트라키아 해안에 있던 도시국가 압데라는 그가 아테네에 오기 이전에도 이미 상당 수준의 민주정 체제가 확립되어 있었으며, 프로타고라스의 정치적 신념과 교육의 이념은 아테네가 아니라 그의 조국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뒤집어 보면 프로타고라스는 자신의 도시국가가 민주적으로 발전하는 데에 정치적으로나 교육적으로 기여했다고 봐야 한다. 다른 소피스트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고르기아스(485~4세기 초)의 조국인 시칠리아의 레온티니, 프로디코스(460~4세기 초)의 조국인 키클라데스의 케오스, 폴로스의 도시 아크라가스, 힤피아스의 엘리스, 트라쉬마코스의 칼케돈도 역시 민주정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 소피스트는 자국의 민주정을 배경으로 자신들의 생각을 키웠고 그에 입각하여 정치적인 활동을 하였으며 교육적인 영향력을 발휘함으로써 자기 도시의 민주정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했을 것이다. 로빈슨은 5세기에 활동하던 초기 소피스트들의 도시국가의 정치체제를 검토한 후에 소피스트와 민주주의 사이의 깊은 관련성을 강조하며, 이런 결론을 끌어냈다. ‘아테네는 소피스트의 사상과 활동에 적합한 곳이었으며 그들의 교육 상품에 호감을 가진 소비자들이 풍부한 곳이었다. 따라서 소피스트의 활동에 일정한 장을 제공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아테네가 소피스트들에게는 자신들의

출신 지역의 민주적 정치공동체만큼 중요했던 것은 아니다.’ 로빈슨에 따르면, 소피스트들이 자신들의 도시국가의 민주적 정치제도에 기여한 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그들의 활동에 힘입어 그리스 전체(적어도 델로스 동맹 안에서)의 민주화는 촉진되었다는 사실이 더 많이 주목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조국의 민주정치체제를 대변하는 사절로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활동하였기에 그들의 가치는 교육적인 측면에서만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 활동에서 더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그들의 정치적 활동에 비해 교육적 활동은 부수적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는 그동안 그것을 지나치게 강조하였으며, 그것도 너무 아테네의 틀 안에서만 평가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자문하게 된다. 그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다른 도시를 방문하였듯이 아테네에도 들렀고, 들른 김에 시민들의 요청에 따라 초청 강연에 응하고 강연료를 선물처럼 받았던 것일 뿐인데, 그들이 아테네의 청년을 타락하게 만들고 교묘한 말재주를 팔아먹는 장사꾼이라고 손가락질한다면, 그것은 정당한 비판이 아니다. 물론 소피스트들 중에는 정말로 사기꾼과도 같은 못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플라톤이 그려준 소크라테스가 전해주는 프로타고라스도 그런 사실을 고백한다. “다른 소피스트들은 젊은 사람들을 망쳐 놓습니다.”(『프로타고라스』 318d-e) 자신은 젊은이들을 어제의 모습보다 더 나은 모습이 되도록 해주지만, 그와 정반대로 더 나쁘게 만드는 나쁜 소피스트가 있다는 것이다. 기록에 따르면, 못된 소피스트들에 대한 법적 제재조치는 5세기 중반부터 이미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적어도 프로타고라스와 고르기아스 등 우리가 이름을 기억하고 있고 거론할 수 있는 소피스트들은 정치·교육 전반에서 다시 평가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우리는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던 ‘나쁜 소피스트’가 아니라 프로타고라스와 같이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 ‘다시 평가되어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소피스트들을 복권시킬 수 있을 것이다.

IV. 맺음말을 대신하며

맺음말을 대신하며 플라톤의 저술의 특징을 짚어보고자 한다. 그의 작품은 흔히 ‘대화편’이라고 불리는데, 철학적 논문 형태가 아니라 문학적인 드라마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 고전기에 가장 인기 있던 문학 장르인 드라마(비극과 희극)의 글짓기를 철학적인 논의에 도입한 것이다. 그 철학적 드라마의 주인공은 거의 언제나 소크라테스였다.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에 따르면, 플라톤은 어려서부터 비극작가가 되고 싶어 했다. 어느 날 그는 디오닉소스 제전에 올릴 비극작품을 들고 가다가 극장 앞에서 우연히 소크라테스를 만났다. 소크라테스와 대화를 나누던 중에 크게 감동한 플라톤은 출품하려던 비극 작품을 불에 던져버렸고 곧바로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되었다. 그 전날 소크라테스는 꿈을 꾸었는데, 어린 백조 한 마리가 무릎 위로 날아와 감미로운 소리로 울더니 다시 날아가 버리는 것이었다. 그는 플라톤이 자신에게 다가왔을 때, 꿈 속에 보았던 백조가 그임을 즉각적으로 알아차렸다.²⁾ 플라톤은 한 마리 백조처럼 아름다운 목소리로 평생 소크라테스를 위한 철학을 노래한 것일까? 30편이 넘는 대화편에서 플라톤은 한 번도 제대로 무대에 오르지 않았고 오직 스승만을 무대 위에서 돋보이게 하였다.

그래서 옛날의 플라톤 연구자들 중에는 플라톤이 독창적인 철학자가 아니라 소크라테스의 대화를 기록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 모든 중요한 이야기가 소크라테스의 입을 통해 흘러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작품 속의 소크라테스를 곧이곧대로 역사적인 진짜 소크라테스라고 보는 학자들은 많지 않다. 당대 희극과 비극 배우들은 가면을 쓰고 무대에서 등장했다. 그런 것처럼 플라톤의 대화편이라는 무대 위에서 활약하는 소크라테스는 소크라테스의 가면을 쓴 그 누구이다. ‘그 누구’가 진짜 소크라테스의 목소리를 충실하게 내기도 했지만, 과감하게 자신만의 이야기도 쏟아내었다. 가면 뒤의 ‘그 누구’는 다름 아닌 대화편의 저자 플라톤 자신이었다. 소크라테스의 가면을 쓰고 하는 이야기들 가운데 어디까지가 소크라테스의 생각이고 어디부터가 자신의 생각인지 알 수 없도록 플라톤은 ‘짓궂게도’ 스승의 가면을 쓰고 관객 앞에 나타나 철학적 유희를 즐

2)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우스, <유명한 철학자들의 생애와 생각>, III, 5-6.

겼던 것이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가면을 쓰고 다양한 사람들과 치열하게 싸웠다. 그 무대는 소크라테스가 살아 있던 기원전 5세기다. 반면 플라톤은 주로 기원전 4세기에 글을 썼다. 소크라테스의 대화 상대자는 대체로 당대 지식인들로 꼽히던 시인과 정치가, 철학자, 그리고 특히 소피스트들이었다. 소크라테스는 프로타고라스, 고르기아스, 트라쉬마코스, 힉피아스를 상대로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그런데 그 소피스트들은 또 누구인가?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와 소피스트가 싸우는 무대를 꾸며 놓고 스승보다 더 날카롭게 버린 비판의 칼날을 그 소피스트들에게 들이댔던 것일까? 물론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가 소크라테스가 아니라 플라톤을 감추는 가면이듯이, 그 소크라테스가 싸우는 소피스트들도 실명 그대로의 소피스트들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감추는 가면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사람(들)은 플라톤이 가장 치열하게 싸워야만 했던 당대의 경쟁자(들)일 것이다. 그 경쟁자 가운데 가장 강력한 이로 꼽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소크라테스였다.

이소크라테스는 플라톤이 전면에 내세우는 지식(epistēmē)이나 지식이 전제하는 영원 불변하는 이데아(Idea) 같은 것을 허상과 같은 것으로 무시하거나 현실적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비판했다. 설득을 위해 진짜 중요한 것은 격변하는 정치현실 속에서 시민들이 함께 모여 정치적 현안을 해결해나가는 공론의 장이었다. 그곳에서 시의적절한 의견(doxa)을 제시하고 소통하며 합의를 끌어내는 실천적인 지혜와 현명함(phronēsis)을 지식보다 우위에 놓았던 것이다. 설득의 중심을 지식이 아니라 의견에 두었는데, 바로 이것은 소피스트 수사학의 핵심이었다. 이것은 설득의 오체가 인간 바깥에 객관적이고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이데아와 같은 어떤 실체나 그것에 관련된 진리, 진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반영한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의 사물과 상황들이 인간의 내면에 비춰진 것, 인간의 감각과 인식기관에 보여진 것에 있다는 주장과 통한다. 실제로 프로타고라스는 사태의 진실과 거짓, 사물의 그러함이나 그렇지 않음을 판단하는 기본은 사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그것도 가각의 개인에게 있다는 의미에서 “인간은(또는 개인은) 만물의 척도”라는 말을 했다. 한편 고르기아스는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와 같은 “존재는 없다. 있다 해도 알 수 없다. 안다 해도 말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 상대주의를 말한 것이라면, 뒷사람은 인식론적 회의주의를 주장한 것이다. 이소크라테스의 목소리를 읽어내며 플라톤의 사상과 대비시키는 일은 지나친 일이 아니다. 플라톤의 철학적 연극은 겉으로 보기에는 소크라테스와 소피스트의 대결이었지만, 그 가면 뒤에 감추어진 실체는 플라톤과 이소크라테스였다는 말이다. 설득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 소피스트나 이소크라테스처럼 할 것인가, 아니면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처럼 할 것인가? 이 문제는 지난 그리스 고전기만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에게도 절실한 현재진행형인 것이다.

〈참고문헌〉

- Dunn, J. (1994). *Democracy: the unfinished journey, 508 BC to 1993 A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Kerferd, B. B. (1981). *The Sophistic Movement*. 김남두 (역) (2003). <소피스트 운동>. 파주: 아카넷.
- Raaflaub, K. A., Ober, J., & Wallace, R. (2008). *Origins of Democracy in Ancient Greec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Ricken, F. (1988). *Philosophie der Antike*. 김성진 (역) (2000). <고대 그리스 철학>. 서울: 서광사.
- Robinson, E. W. (2007). The Sophists and Democracy Beyond Athens. *Rhetorica: A Journal of the History of Rhetoric*, 25(1), 109-122.
- Romilly, J. de. (1988). *Les grands sophistes dans l'Athènes de Périclès*. Paris: Editions de Fallois.
- Smith, B. G., Martin, T. R., Po-chia Hsia, R., Hunt, L., & Rosenwein, B. H. (2013). *The Making of the West: A Concise History, Volume I: peoples and Cultures*. (p.44). Boston and New York: Bedford/St. Martin's.